

# 嶺南大學校의 敎育理念과 發展方向



柳 駿  
(嶺南大 總長)

## I. 略史와 現況

영남대학교는 1967년 12월 16일 민족정신이 투철한 지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대구대학교와 청구대학교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이 발족하였다. 통합 이전의 두 대학 중 대구대학교는 1947년 9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아 그동안 16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청구대학교는 1950년 4월 10일 설립인가를 받아 14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영남대학교는 통합 이전의 두 전신대학사를 통산하여 1985년 현재 개교 38주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새로운 종합대학교로 발족한 영남대학교는 1967년 12월 16일 당시 6개 단과대학(문과대학, 공과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약학대학, 2부대학) 35개 학과와 대학원 12개 학과였다. 그 이후 본교의 발전과정을 ① 단과대학 및 학과의 번동 ② 대학원, 연구소 및 부설기관의 번동 ③ 캠퍼스 건설의 순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단과대학 및 학과의 발전과정

1967년 발족 당시 6개 단과대학 35개 학과였던 영남대학교는 1968년 농축산대학과 가정대학

의 신설 인가로 편제 및 정원이 조정되어 8개 단과대학 41개 학과에 모집정원 1,595명으로 변화하였다. 이어 1972년에는 사범대학이 신설되어 9개 단과대학 47개 학과에 모집정원 1,960명이 되었다. 다시 편제 및 정원의 조정을 거듭하여 1980년에는 의과대학이 신설되었으며(의예과의 학생모집은 1978년부터 실시됨), 문리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분리되었고, 사범대학이 사범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으로 분리 개편됨에 따라 13개 단과대학 76개 학과에 모집정원 5,680명이 되었다.

그리하여 영남대학교는 1985년 현재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농축산대학, 가정대학, 사범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등 12개 단과대학 및 야간강좌 개설부에 81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집정원은 5,701명에 달하여 명실공히 한국 제일의 사립대학으로 발전하였다.

### 2. 대학원, 연구소 및 부설기관의 발전 상황

발족 당시 1개 대학원 12개 학과이던 것이 현재는 경영대학원, 환경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3개 특수대학원에 26개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대학원에 49개의 석사과정과 35개의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대학연구소로서 인문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공업기술연구

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원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 새마을·지역개발연구소, 환경문제연구소, 산업경제연구소, 기초의학연구소, 임상의학연구소, 해양과학연구소, 한·일문화 비교연구소 등 13개 연구소가 설치되어 다양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설기관으로서 대학병원, 중앙도서관, 박물관, 영대신문사, 교육방송국, 시청각교육관, 전자계산소, 학생생활연구소, 보건진료소, 출판부, 학생기숙사 등 11개의 중요 기관이 설치되어 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 3. 캠퍼스 건설과정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이며 가장 광활한 대학 캠퍼스 건설 과정과 현황을 소개하던 다음과 같다. 발족 당시 영남대학교의 캠퍼스는 두 대학의 통합이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대구 시내의 3개소에 위치하였다. 즉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시 중구 문화동 및 대구시 동구 효목동 캠퍼스가 그것이었다. 따라서 새로이 발족한 종합대학교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종합캠퍼스 건설이었다. 그리하여 1968년 6월 대구시 중심부로부터 15km 거리에 있는 경산군 경산읍과 압량면에 105만평의 광활한 학교부지를 마련하여 1969년부터 영남대학인의 꿈과 이상을 담은 웅장한 캠퍼스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 후 1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캠퍼스의 건설 과정은 하루도 쉴 사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1971년부터 새로운 캠퍼스에 이주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구시 대명동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경영대학원과 환경대학원이 위치하고, 대학본부를 비롯하여 11개 단과대학과 야간강좌 개설부, 대학원, 교육대학원, 대부분의 대학연구소 및 부설기관 등 거의 모든 대학기능이 경산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산의 압량벌은 원래 삼국시대 이전에는 押楯國의 도읍지였으며, 신라의 金庚信 장군이 화랑을 조련하던 유서 깊은 성지였고, 또한 法性宗의 始祖로서 신라 十聖 중의 한 분인 元曉와, 吏諷를 창제하고 신라문화를 꽃 피웠던 薛聰,

이 두 巨星이 탄생한 곳도 여기였으니, 그야말로 이곳은 신라통일의 정신과 학의 발상지라 하겠다.

현재 영남대학교의 캠퍼스는 그 규모가 100만 평에 달할 만큼 웅대함은 물론 자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도 세계의 어느 대학 캠퍼스보다도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어 대학인의 학문활동과 대학 낭만의 산실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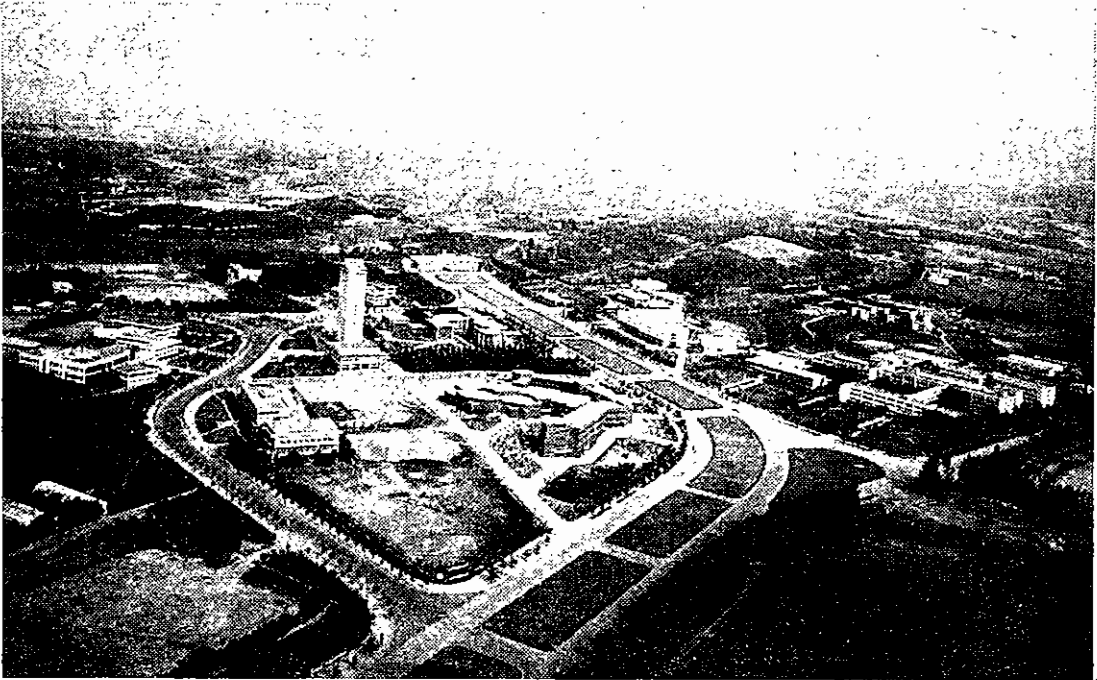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영남대학교는 1945년 조국해방과 더불어 탄생하였던 대구의 두 명문 사립대학을 발판으로 시작하여 민족정신이 투철한 지도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새로운 종합대학으로 발족하였으며,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또한 세계 속의 대학으로서 그 위치를 굳건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 II. 教育理念

무릇 교육에는 전통과 목표가 있어야 하고, 한 학원에는 교육의 목표를 지향해 가는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하므로 두 대학을 통합하여 새로이 출발하는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영남대학교는 두 대학의 창학전통을 함께 살려 새로운 영남대학교의 전통으로 발전시키며, 또 영남이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 朴正熙 대통령의 애국이념을 우리의 법인과 학교의 교육정신으로 삼고 朴正熙씨를 우리의 법인과 학교의 최고 지도자 교주로 모시고 그 지도에 따를 것을 굳게 결의하여 본 대학이 창건되었다.

‘새 역사의 창조자’로서 출발한 본 대학교는 확고한 민주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정기의 함양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이바지하며,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교육과 생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민족중흥의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함을 창학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확고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영남대학교는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전공교육과 교양 및 인격교육을 수행함은 물론 구체적인 기량을 갖춘 인재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왕성한 협동정신은 嶺南大의 자랑이다

### Ⅲ. 嶺南大學校의 特性和 發展方向

#### 1. 民族의 大學

영남대학교는 민족문화의 발전적 계승으로 민족의 역량을 축적하고 세계문화의 주체적 탐구로 민족의 역사문 창조하는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우선 영남대학교의 校地 자체가 이러한 '민족의 대학'으로서 사명 완수에 적합하게끔 신라통일의 정신과 힘의 발생지인 경산의 압량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의 상징으로서 天馬像도 신라문화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족문화연구소, 대학박물관 및 국학관계 학과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원효, 김유신, 화랑, 고 박대통령 등으로 연결되는 애국정신과 통일정신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민족의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연구소를 통하여 당면한 민족의 영원인 민족통일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영남대학인을 통하여 민족통일의 의지를 심

화·발전시키는 데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교는 이러한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정신적 상징 중의 하나로서 '民族中興의 樞樞'이라는 창설자의 의지를 대학 운영의 최고 지침으로 삼고 있다.

#### 2. 世界 속의 大學

무릇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그 민족의 문화의 질에 달려 있고 그 민족의 문화의 질은 그 시대의 학문적 수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대학의 질이야말로 민족의 문화와 민족의 번영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남대학교는 대학의 수준과 학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 속에서 학문의 경쟁적 발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교와 교류하고 있는 외국 대학을 보면, 미국의 경우 Ball State대학, St. John's대학, Maryland 대학 등과는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교수와 학생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Michigan 대학과는 정기적으로 노인·노화 문제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그밖에도 UCLA, Harvard 대학, Temple 대학, Princeton 대학, Hawaii 대학 등에도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近畿 대학, 早稻田 대학, 九州 대학, 日本 대학 등을 비롯하여 여타 다수의 대학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自由中國의 경우 文化 대학과 자매 결연 관계에 있다. 유럽의 경우 Munich 대학, Paris 대학 등과 학술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매년 100명 내외의 교수들이 국비 장학금, 학술재단의 지원, 그리고 개인부담 등으로 국제 학술세미나 및 자료교환을 위하여 외국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특히 본교는 매년 학교 교비로써 10명 이상의 교수들 외국 대학에 파견하여 학문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3. 캠퍼스 및 시설의 우수성

영남대학교의 캠퍼스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경산의 압량벌에 100만평의 광활한 단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본교는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캠퍼스를 건설한 결과 본교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던 누구나가 감탄할 정도로 캠퍼스의 전원적 분위기와 우람한 건물들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 놓았다. 한마디로 영남대학교의 캠퍼스는 세계의 어느 대학에 비교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건설되어 있어서 대학인의 학문 활동은 물론 심신의 단련장으로서도 충분한 곳이다.

본교는 현재도 캠퍼스 건설계획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38만권의 장서와 5,000명 규모의 중앙도서관 외에 3,400명 규모의 제 2 도서관을 곧 완공하게 되어 있고, 대학박물관도 그 소장품이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학박물관을 건설함으로써 민족문화 유산을 유감 없이 보관·전시하게 될 것이다. 또한 8만명 규모의 대학식물원을 건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 및 휴식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 4. 대학병원과 학생건강공제회

영남대학교는 1983년 5월 28일에 대학부속병원을 개원하였다. 본교 부속병원은 연건평 13,005

평, 지하 3층, 지상 13층의 초현대식 종합병원으로서 약 5년간에 걸쳐 완공됨으로써 한국의 종합병원사에 하나의 새로운 모형으로 등장한 것이다. 본교 부속병원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시내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최대의 종합병원 중의 하나이다. 비록 종합병원으로서 그 역사가 짧지만 최신의 의료기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함으로써 이미 다른 종합병원을 앞지르고 있다.

영남대학교는 이러한 부속병원을 통하여 의학 교육과 연구 및 의료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본교 재학생 중에는 아직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반 의료보험 수혜자들과 똑같은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생건강공제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본교 부속병원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1차적으로 경산캠퍼스의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진료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속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 5. 産學協同과 地域에 대한 積極的 奉仕

영남대학교는 지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중요한 산업지역과 산학협동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중핵적 위치에 놓여 있다. 즉 포항의 종합제철공장, 구미의 전자산업공단, 그리고 창원 지역의 중공업 기계공단 등을 연결하는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교는 이들 한국의 대표적 근대 공업지역과 적극적인 산학협동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대학의 지역봉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산업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본교의 공과대학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여 왔으며, 공업기술연구소를 통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기술개발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문교부가 전국의 10개 대학에 특성화 학과를 지정·육성함에 있어 본교의 금속공학과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본교의 해양과학연구소를 통하여 산학협동적 연구활동이 더욱 적극

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대학의 지역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경영대학원, 환경대학원, 교육대학원, 환경문제연구소, 새마을·지역개발연구소 등의 역할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 6. 왕성한 協同精神과 自由스러운 大學勞圍氣

영남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교수·직원 및 학생 간에 대학발전을 위한 협동정신이 왕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교수가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학생이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깊은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성장한 영남대학교의 졸업생들은 사회에서 그들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또한 영남대학교의 전체적 분위기는 항상 자유스럽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영남대학교에 몸담은 사람이면 누구나가 오래도록 근무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교수 각자는 스스로 훌륭한 연구업적을 내고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대학이란 상이한 전공학문을 모두 포용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스럽게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상이성과 다양성 속에서 조화의 미덕을 터득함으로써 인간을 위한 지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공동체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남대학교가 자랑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와 왕성한 협동정신은 대학 본연의 속성인 다양성과 조화를 통한 창조의 가치를 위하여 기름진 토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7. 學問과 教育의 質의 向上

이상에서 밝혀진 영남대학교의 모든 특성들은 앞으로의 본교의 발전방향에 그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즉 '민족의 대학'으로서의 특성과 사명, 세계 속의 대학으로서 계속적인 지향, 우수한 캠퍼스 건설과 시설의 확충, 대학병원의 발전과 학생복지의 확충, 산학협동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왕성한 협동정신과 자유스러운 대학 분위기 등 영남대학교가 지닌 훌륭한 특성들은 그 자체 영남대학교의 발전방향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종국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학문과 교육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 우수한 교수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연구비 확충을 통하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교육방법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표준화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교육 및 연구시설, 도서관 시설 등을 현대화할 것이고 학문적 정보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방대한 재정적 수요를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대학경영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러한 재정보호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립대학들이 아직도 대학발전에 소모되는 재정수요를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그러한 시대는 지나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는 첫째로 현재의 대학에서의 지출을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 개선책을 과감히 단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에서 기금창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개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내에서의 식당경영, 일용품·기념품 등의 판매, 무공해 식품생산, 방대한 교지의 생산적 활용, 목장 및 농장경영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산학협동을 더욱 적극화함으로써 연구활동을 북돋우고 부족한 연구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하며 학생 취업 앞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